

현대중국어 사역문의 의미분석

— ‘使’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봉금*

<目 次>

1. 서론
2. ‘使’의 의미 사역문의 의미구조
3. 의미역의 특징
3.1 NP1의 특징
3.2 NP2의 특징
3.3 VP의 특징
4. 결론

1. 서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비롯하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 또한 그 원인과 과정 및 결과라는 구조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각각의 요소들 간에 특수한 조건과 성질을 구비해야만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역구조는 중요한 문법구조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는데, 어떤 실체가 자발적으로 모종의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자의 작용이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상식적인 의미에서 ‘사역’이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는 사역자가 피사역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나 동작을 하게 하거나, 혹은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態를 말한다.

먼저 사역문의 특징에 의거한 의미 분류를 통해, 세계 언어 보편적으로 나타난 사역문이 중심적인 것에서 주변적인 것으로 확장되어 있는 여러 양상들을 살펴보

* 高麗大學校 中日語文學科 博士課程

기로 하자.2)

- ① 명령·지시: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강제적으로 행동이나 작용 등의 피사역 사태를 하도록 시키는 경우.
(1) 母親讓我到書館學習。
엄마가 나를 도서관에 가 공부하도록 한다.
- ② 허용·허가: 피사역자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사역자가 그것을 허락하는 경우.
(2) 我媽媽吃飯的時候不讓我看電視。
엄마는 밥 먹을 때 TV 시청을 못하도록 한다.
- ③ 방위: 피사역사태가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실제로 사역자의 행동은 없기에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3) 讓世界充滿愛情。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만듭니다.
- ④ 원인: 무언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피사역사태가 일어난 경우.
(4) 他的這種行為使我特別感動。
네의 이와 같은 행동은 나를 너무 나도 감동시켰다.

이렇듯 사역의미 구조는 위 몇 가지 의미들로 개괄할 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문장들 가운데 특별히 ①과 ②의 ‘使’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 중국어 사역문의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1) 안에서 행위자와 피행위자를 비롯한 각 의미역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각각의 특징들에 관해 구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2장에서는 우선 사역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 여기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기존에 연구되어 온 사역문의 중심이 되는 V의 특징에 의하여 그 품사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아울러 3장에서는 ‘V’와 더불어 서로 결합한 N₁ 과 N₂ 및 VP의 의미에 근거하여 각각의 자질2)

2) 《국어학사전》(1995) 참조.

1) 동사의 논항구조:

- a. 논항의수: 동사는 1항 2항 혹은 3항 술어에 속한다.
- b. 의미선택: 논항이 담당하는 의미역(행위자, 대상, 피형체, 장소 혹은 명제 등)
- c. 범주선택: 논항이 속하는 문법적 범주(명사구, 개사구, 종속절 등)

鄭正德(2009: 574) 참조.

및 그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논하여 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기로 한다.

2. '使令'의미 사역문³⁾의 의미구조

사역표현에 관한 논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사령의미의 정의를 확실히 규정하는 일일 것이다.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서는 사역을 나타내는 형식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령의미 사역에 대한 예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명칭과 개념을 파악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역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사역문을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다른데, 크게 다음과 같은 입장이 공존한다.

사역문에 관해 Shibatani(1976:1-3)의 의견을 들면, 그는 '사역이란 선행된 어떠한 사건이 원인사건(causing event)이 되어 어떠한 결과 사건(caused event)을 일으키는 구분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서 보았을 때, 사역범주란, 두 가지의 사건이 존재하는데, 우선 A라는 원인과 B라는 결과가 존재하며, 양자 사이의 관계란 A가 B의 생성을 야기한다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정의는 인과 관계에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중국어 사역문에 관한 정의로 시각을 돌려보면, 郭殊慧(2004)는 현대중국어의 모든 使動的범주 가운데, '使', '令'과 '致使'는 서로 연관성을 띠나, 또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의미유형이라고 하였으며, '使'字句는 '使令'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 일종의 전형적인 '致使'의미를 나타내는 별개의 문장형식이라고 주장하였다.

吳竟存 역시 현대중국어에서 동사로서의 사역표지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예를 두고서 사역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支使'로 '-하게 하다'(使什麼做什麼)라는 명령의미를 나타내며, 그 예로는 "叫他來"가 있고, 다른

- 2) 본고에서 말하는 자질이란 곧 Feature의 의미로서 다른 말로는 특징, 특색, 성격, 특성 등으로 일컫기도 한다.
- 3) 사실 위에서 언급한 ① 명령·지시사역과 ② 허용·허가사역 두 가지는 의미상 차이가 있겠으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자질 가운데 많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에 수 많은 논문에서는 이 두 사역의 예를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사역문의 범위는 '使令'의 의미에 국한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하나로는 '致使'⁴⁾ 즉 '무엇을 어떻게 되게 하다(使什麼怎麼樣)'를 표시한다고 하였다.⁵⁾ 따라서 비록 같은 사역의 맥락일지언정 사역의 의미는 그 쓰임의 용도와 문맥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으며, 이러한 견해들을 두고 사역에 관한 진일보된 분석해설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⁶⁾

본고에서는 여러 사역의미 구조 가운데 '使令'의미에 역점을 두고 '使'를 중심으로 한 중국어 사역문 안에서 각 의미역들이 나타내는 특징에 관해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우선 V이 논항구조 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품사성에 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이 표지들에 대한 품사적 견해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으로 動補說이 있고, 介詞說, 次動補說, 虛詞說, 兼語式說 등이 있는데 수많은 문법학자들(王力、朱德熙、呂叔湘、石毓智、鄭昌來)은 모두 중국어 가운데 절대다수 개사들은 모두 동사로부터 전화되어 온 것이라 여기며 따라서 동사의 특성과 기능들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역문에서 사역표지로서 사용되는 성분들을 동사로 보는 이러한 견해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 다음은 이들 각說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자.⁷⁾

- 4) 여기에서 말하는 致使의미란 '-에게-을 하도록 시켜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결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의 변화나 행위가 일어나게끔 무엇을 하다'라는 '초래'혹은 '야기'의 의미 쪽에 초점이 있다.
- 5) 요연창 (1998:251)에서 재인용.
- 6) 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논자로는 이익섭·채완(2000: 305)이 있다. 그는 저서에서 '사동이란 사동자가 피사동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떠한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때(Voice)의 하나이다'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후자에 해당하는 견해로는 송창선(1998: 27)이 있으며, '주동은 행위자가 직접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사동은 사동자가 피사동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정의를 내렸다. 같은 의견으로 최현배(1971), 허용(1975), 김병일(1986) 등이 있다. 또한 남기심·고영근(1993: 288)에서는 '남으로 하여금 어떠한 동작을 하게 하는 동작을 사동이라 하고 이러한 사동의 표현법을 문법적으로 사동범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 7)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역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동작)을 하도록 시키다'라는 행위에 제한하는 '시킴사역'혹은 '행위사역' 즉 협의의 사역이나, 실상 언어 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역의미는 그러한 전형적인 사역구문을 제외하고서라도 결과구문의 특성을 고려한 '상태변화'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역관계 또한 존재한다. 즉 우리가 이해하는 사역이 반드시 능동성의 원인동작을 필요로 한다면, 이 밖의 수동성(결과)의 원인동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견제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언어학에서 말하는 '의사사동(Pseudo-Causative)'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

呂叔湘(1956), 胡裕樹(1981), 黃伯榮(1991) 등은 '使'와 '叫', '讓', '請', '命令', '派'등과 같은 동사를 한 종류로 귀납하고, 이러한 동사들은 대부분 사령, 재촉의 의미를 지니며 겹어식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趙元任, 王臨惠 또한 '使', '叫', '令', '讓'등의 표지를 동사로 보는 이유는 이들이 '引起', '導致', '促使'등의 어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표지들은 반드시 그 뒤에 하나의 겹어식, 즉 명사 혹은 명사구 등이 따르게 되며, 곧 '使', '讓', '叫', '令'등의 빈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동시에 두 번째 동사의 주어가 된다.

문장 내에서 사역이라는 문법 범주를 나타내는 기능성 표지의 역할을 하는 성분은 실질적인 어휘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지로서의 역할만을 할 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만일 내용어로서의 사역용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보편적으로 우리는 동사가 나타낸 동작에 대해 주어로서 등장하는 사람 혹은 사물이 이러한 동작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빈어 위치에 등장하는 사물이나 사람 등이 이러한 동작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바꾸어 생각하면 사역의 표지가 하나의 문법범주로 인정이 된다면 기능상에 있어서도 마땅히 실질적 의미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역문이란 사역이라는 문법 범주를 나타내는 기능성 표지를 지닌 문장으로서 이 때 표지로서 작용하는 성분은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단지 표지로서의 기능만을 할 뿐이라는 관념을 갖기 쉬우나, 설령 어떠한 어휘가 표지어로서의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어휘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실질적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讓', '叫', '令'등이 분명 '- 하게 하다', '- 하도록 만들다'등과 같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게끔 하는 실제적 사역 의미로서 사역문을 구성하므로 사역동사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⁸⁾

이 결과구문에 포착되는 광의의 개념에 해당하는 사역을 '결과사역'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김혜경(2009: 24) 참조.

8) 이 밖에도 이들 표지를 동사로 보는 학자로는 丁辭樹(1961), 楊鳳淸(1982), 劉月華(1983),

그렇다면 《現代漢語詞典》(2002)에서 언급된 현대중국어에서 통용되고 있는 '讓', '叫', '令'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역동사	의 미
讓	① 支使: - 에게 -하도록 지시하다 ② 容許: -하도록 (허락)하다. ③ 致使: -하게하다/ -하도록 만들다. ⁹⁾
叫	① 외치다. 고함치다. 소리 지르다. 소리치다. 부르 짓다. ② 부르다. 불러 오다. 호출하다. ③ 요구하다. 명령하다. -시키다. -하게하다.
令	① 명령하다. 지시하다. ② -하게 하다. -을 시키다. ③ 좋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령'에는 위 세 가지의 의미가 공존하다.

다음은 간단히 위의 세 표지들이 역사적으로 동사 표지로서 활용된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讓'은 '讓'은 '謙讓'등의 의미가 사역동사로 전화된 것이며, '使讓', '允讓', '容讓' 등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이가 사역용법으로 쓰인 예의 출현은 비교적 늦은 '宋元' 시기에 가끔 확인할 수 있으며, 明清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¹⁰⁾

- (5) 那佳女人讓客先行,
저 아름다운 여인은 손님이 먼저 가도록 양보를 한다.
- (6) 張三主動地拉開一把椅子讓劉美萍坐下.

胡附·文煥(1990), 王臨惠(1991) 등이 있다.

9) 이 밖에도 '讓'에는 '願望(원하고 바라다)', '被(-에게 당하다)', '聽任(마음대로 하게하다/좋은 대로 내맡기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구성된 통사구조도 겹어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讓'으로 구성된 겹어문은 보통 NP1이 출현하지 않는다.

10) 張美蘭(2006) 참조.

張三是 주동적으로 의자를 꺼내어 劉美萍을 앉게 하였다.

위는 문장 내에서 활용되는 '讓'의 사역용법의 예를 간단히 살펴본 바로 '讓'字사역문의 사역자는 어떠한 목적성을 갖고서 피사역자로 하여금 변화가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 때 VP에는 보통 아직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 따르게 된다.

현대중국어에서 '讓'은 가장 전형적인 사역동사중 하나로 정착해 왔는데 이는 곧 점차적으로 실질적인 어휘 의미에서 사역을 표시하는 기능어로 변해 감을 대변 해주며 바로 이 때문에 '讓'은 피사역자의 의미역할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讓'이 다른 사역표지를 완전히 대체해버린 것은 아니기에 원래의 사역표지를 대체한 경우 이들 사이에 모종의 의미차이가 존재한다.

- (7) 愛情讓/使你煩躁。 (사랑이 너를 번뇌케 한다.)
- a. 什麼讓你煩躁? (무엇이 너로 하여금 번뇌케 하는가?)
- b. ?什麼使你煩躁?

위 예문 (7)에서, '使'字句와 '讓'字句의 대주어인 NP1에 대한 질문을 해 보았을 때, '使'字句를 쓴 질문은 다소 어색해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장은 피사동사건이 '煩躁'라는 비동작성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비동작동사가 등장할 경우에는 '讓'보다는 '使'가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혹 '使'가 들어가야 할 비동작성 동사들 대부분이 '讓'과 공기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使'와 결합하는 것에 비해 생동감이 부여되며, 이는 곧 '讓'이 본래 동태적 특성을 띤 표지임을 대변해 준다.¹¹⁾ 이러한 동태적인 특성은 곧 '讓'이 전형적인 '시킴'의 미를 나타내는 동사로서의 사역표지로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

11) 이러한 의미구조는 정태적인 상황에 비해 동태적 상황을 더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움직일, 역동성과 같은 의미적 자질요소를 반영하게 된다. 때로는 '讓'이 동태적 상황 외에도 정태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 현상을 접할 수가 있는데, 이는 문법화(grammaticalization) 이론에서 말하는 일반화(generalization)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화란 어떤 성분이 특수한 어휘적 의미를 상실하여 일반 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의미 변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의미의 특수성이 적응수록 해당 성분이 쓰일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용 분포가 넓어진다. 이성하 2000:258 참조.

으로 보인다.

한편 '叫'의 경우를 살펴보면 《說文·口部》에서는 '叫'가 '呼叫', '喊叫'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사역 구문 내에서는 '使令', '允讓'과 같은 비교적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되며, 최종적으로 사역자를 소개하는 경동사로 허화되어졌다. '叫'는 使役의미가 致使의미로 발전한 것으로 '使', '令'등의 발전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叫'의 사역자는 使役과 致使의미 이외에도 또한 피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총괄하자면, '使', '令'의 발전상황 역시 使役에서 致使의미로의 전환된 것으로, 사역의 의미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현대중국어에서 '教', '叫'의 동사주어에는 사역자와 致使原因의 발전용법 모두 보유하고 있다. 宋金시기의 문헌 가운데에는 '叫'가 '呼喚'의 의미를 대동하였으며, 순수한 使役의미로서의 쓰임은 매우 극소수였다.¹²⁾ 元明시기에 단순한 사역용례는 많지 않지만, 사용량에서 보았을 때, '叫'와 '教'가 서로 교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¹³⁾ 이 '叫'자가 진정한 사역의미의 용례로서 보인 시기는 明代중엽의 언어자료 등에서 대량 발견된 예가 있는데, 明末의 《三國演義》나 《星世因緣傳》등에서, '叫'의 사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 清代 《紅樓夢》과 《兒女英雄傳》에 이르러 '叫'자가 비로소 대량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의 흥기에 따라 '教'의 사용량은 또한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 (8) 便叫臧霸出馬搦戰。
臧霸로 하여금 출마하여 싸우게 하였다. 《三國演義》
- (9) 這個臧大舍原是揮霍的人，只因做了窮秀才的兒子，叫他英雄無用武之地。
臧大舍은 본디 돈을 마구 쓰는 사람이나,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그로 하여금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다. 《星世因緣傳》

《現代漢語虛詞例釋》에서는 '叫'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지시, 분부 혹은 명령하여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문법화 이론을 빌어

12) 게다가 이러한 쓰임들도 대부분이 어록이나 회극등과 같은 구어적인 특징이 명백 히 나타나는 문헌 가운데 수록되어 있으며, 詩詞와 같은 작품 중에는 극히 드물게 발견이 되었다.
13) '叫'가 사역의 의미로 쓰일 때 일반적으로 '教'와 같은 단어로 보고 있다.

연구해 볼 때, '叫'字句 역시 일정한 문법화의 과정을 거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우선 동사로써 쓰이는 '叫'의 경우와, '被' 등과 같은 순수한 개사로서 피동표지로 쓰이는 '叫'의 경우를 모두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숨'은 命의 의미이며, 언어 행위로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¹⁴⁾ '使'와 마찬가지로 '派遣', '命'류에 속하는 원형 사역표지이다. 洪波는 기원전 1세기 이후에, 사성식 가운데 사령동사인 '숨'은 목적성을 지닌 '讓'이 될 수도 있고, 또한 '致使', '導致'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中古시기 이후로 '숨'의 '致使'의미의 용례가 비교적 보편화 되었으며, 때문에 'NP1 + 숨 + NP2 + VP'에서의 VP의 동작의미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 (10) 愿四塞來朝明帝. 令夫媿免教流浪.
원하옵건데 사방 변경에서 명철하신 황제께서 내조하셔서, 전쟁 나간 서방님이 떠돌아 다니는 일 없도록 만드시오소서.
- (11) 能令公子百回生. 巧使王孫子.
공자로 하여금 백번 소생케 하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할 수 있다. <游仙窟>

3. 의미역의 특징

본고에서는 '使'의미 사역문에서의 사역자(causer)¹⁵⁾는 피사역자(causee)에게 어떠한 에너지를 가해서 사건을 유발시키는 원인 제공의 주체로 본다. 한편 피사역자는 그 영향으로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에너지를 전달받아 물리적,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나, 원래 위치에서 목적지 방향으로 장소를 이동하게 되는 등의 변화를 받게 되거나 혹은 내부적으로 심리적, 감정적 영향을 받아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나타내는 객체가 된다.

14) <爾雅·釋詁上>: “命, 令, 勅, 諭, 祈, 請, 諄, 諭, 告也.” <廣雅·釋詁> 卷一下: “廨, 使, 牧, 圉, 侍, 御, 僕, 從, 扈, 囊, 任, 雨, 辯, 令, 侯, 庸, 童, 役, 謂, 命, 使也.”
15) 사역문의 NP1에 관해서는 여러 명칭들이 있다. 즉 원인자 유발자 혹은 사역자(causer), 행위자(agent), 영향자 등이 있는데, 우선 명칭상의 혼란을 피해 사역자라 통칭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분류는 제 3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본 장에서는 현대중국어 사역문의 '使'의미에 역점을 두어 V를 중심으로 한 논항구조 및 이러한 의미역의 특성(자질)을 탐색하여 분석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역구문에 대해 Talmy(1988)는 사역구문의 동력학 이론(force-and-effect)에 의거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유형을 두고서 아래와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¹⁶⁾

사역 유형	N ₁	N ₂
a. 물리적 사역(physical causation)	무정물	무정물
b. 의지적 사역(volitional causation)	유정물	무정물
c. 유도적 사역(inducive causation)	유정물	유정물
d. 정서적 사역(affective causation)	무정물	유정물

위의 분류는 사건에 대한 행위를 가하는 특성이 신체적(physical) 또는 정신적(mental)인 요소에 의해 구분되므로 두 개체 가운데 어떤 개체의 특성이 다른 개체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다른 인과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 분석은, 사역자와 피사역자가 사람이나 무생물이나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사역구문은 유정과 무정의 자질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위 동력화 이론에 근거하여 사령의미 사역문의 의미역 자질을 분석해 볼 때 어떠한 사역에 가장 근접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은 사역문 구성에 있어 이러한 의미역의 자질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使'수이란 곧 상대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발휘하여 그 대상이 스스로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시킴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볼 때 첫째, 사건이 사역자가 되고, 둘째, 사고능력(mental processing capacity)을 지닌 유정물과 기계적, 자동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무정물이 피사역자가 되는 것이 전형적인 '使'수 사역문의 특징이라 결론지을

16) Talmy identifies four principal types of force-dynamic relations in which particular configurations of particular types are involved: human acting on human(inducive causation), human acting on inanimate participants(volitional causation), inanimate participants acting on humans (affective causation), and inanimate acting on other inanimates (physical causation).

수 있겠다.

사역문의 핵심 의미역들의 특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사역행위를 시행하는 정도에 따라 사역문내 참여자들의 배열관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12) Agent > Instrument > Recipient / Experiencer > Theme > Location
Jackendoff(1972: 43)

위 예문(11)에 열거해 놓은 Jackendoff의 의미역 계층(hierarchy)에 의하면 행위자는 가장 상위(왼쪽) 계층에 놓여 있으며, 도구, 수동자, 경험자, 목적지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본 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의미역에 의한 분석은 행위자, 사역동사, 경험자/수동자, 목적지(goal)/통로 등의 계층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13) AGT/THEME V EXP/PATIENT GOAL/PATH

3.1 N_i의 특징

행위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Givon(1984:88)은 행위자를 사건이나 행동 변화의 의도적 유발자이며, 대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책임자라고 정의하였다. Dowty(1988:19)는 행위자를 사건의 원인을 유발시키고, 의도성(intention), 감각성(sentience) 이동성(movement)의 자질을 가졌다고 정의하였다. 즉 이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행위자는 사건의 유발성 및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어 사역문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NPI를 문장의 주어이자 행위자로 여긴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행위자를 사역문의 핵심적 논항으로, 의지와 행위의 의식적 통제력¹⁷⁾을 통해 사건이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을 발생하여, 피행위자에

17) 여기서 말하는 통제성이란 행동(activity), 사건(event), 상황(situation)의 모든 원천을 포괄하는 것으로, 행동에 제약을 두어 조정하는 것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즉 어떠한 행동을 하기로 한 의지가 끝까지 실행되도록 유리한 요인은 허용하고 불리한 요인은 제거하는 등 주변적 여건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 통제성을 결정하는 주된 자질로

게 정신적, 물리적인 활동에 참여시키며, 상태를 변화시키는 영향자의 역할을 하는 사역자 의미를 부여하기로 한다.¹⁸⁾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피사역자의 의지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게 되는 사령의미 사역문을 본 절에서는 命諭적 사역 반응 문장에 나타내는 사역동사 V를 통해 표현해 보기로 한다.

- (14) 馴獸師讓獅子跳舞。
조련사는 사자를 춤추게 만들었다.
- (15) 我讓松鼠趕走這棵樹了。
나는 다람쥐를 이 나무에서 쫓아내었다.
- (16) 部長令他去市場做調查報告。
부장은 그로 하여금 시장에 가서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사령의미 사역문의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유정성]을 전제로 한 [+통제성], [+의도성]을 지닌 명사로, 피사역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작용하는 사태를 표현한다.

예문 (14)-(17)에서 ‘馴獸師’, ‘我’, ‘部長’등이 사역자로서 명령을 내리면, 피사역자인 ‘獅子’, ‘松鼠’, ‘他’는 사역자로부터의 명령에 응하여 행위를 시도하게 된다.¹⁹⁾ 이러한 사역구문에서의 원인발생자인 사역자는

서는 바로 [+유정성]과 [+의도성] 및 [+자의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다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통제하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통제성은 목적성(purposefulness)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복잡성을 갖춘 컴퓨터나 로봇 같은 [+무정성] 기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유정성]을 갖더라도 사건의 참여자가 의도성이 없다면 그것은 통제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18) 대체로 사역자와 피사역자는 [+유정]의 구조를 이룬다. <국어학사전>(1995)에서는 무정명사란 ‘나무’, ‘유산균’, ‘바위’ 등과 같은 식물이나 미생물, 또는 무생물을 가리키는 명사이며, 유정명사란 것은 ‘학생’, ‘소’ 등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라 언급하고, 유정물·무정물 또는 유정명사·무정명사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무정이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미적으로 동격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animate)로 표시하고, 유정은 그 반대의 개념으로 (+animat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19) 본 연구를 위해 조사한 현대중국어에서 ‘숨’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숨’구문은 뒤의 NP2의 위치에 ‘이’가 등장하며, ‘숨’이라는 고정구문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피사역자를 객관화 시키면 피사역사건의 영향권이 문맥 안에 드러난 어느 특정적 개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확대 적용되게 된다. 즉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아래의

대부분 [+유정성]을 띠는 가운데 구체적인 동작을 하는 사람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책임의식을 갖고 명령을 내려 그의 의지(will)를 피사역자에게 전하게 된다.

사역자는 생명체일 때 행위자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사건이나 상태와 관련된 자율적 의지와 의도 및 통제력을 갖는다고 보나, 이는 비단 생명체가 아닌 비바람이나 폭풍우, 천둥, 번개, 재난, 홍수, 전염병등과 같은 [-유정성]의 힘을 가진 행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예외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특히 사역자의 위치에 사물이 온다면 이 사물은 사람의 의지를 내포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다소 억지스러운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²⁰⁾

관련 명령적 행위를 나타내는 NP₁이 사람이 아닌 사물 혹은 사건의 행위자를 취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17) 市政府叫他們盡心盡力地關照那位國賓。
시정부는 그들로 하여금 그 국빈을 극진히 모시도록 하였다.
- (18) 政府出了小分隊讓敵人的通信設備破壞了。
정부는 소수 정예부대를 파견하여 적의 통신설비를 파괴하도록

문장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 (1) 色彩繽紛的花朵令人陶醉。
색채가 화려한 꽃들은 사람을 도취시킨다.
- (2) 這件美術工藝品，令參加的人贊嘆不已。
이 미술 공예품은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렇듯 ‘가’이 경험자 역으로 충당될 경우 일반적으로 ‘명령’이나 ‘허락’, ‘방임’등의 의미가 아닌 ‘致使(-를 -의 상태에 놓이게 하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여기에 관한 자세한 예문의 언급은 생략하기로 하고 소수를 차지할지언정 ‘명령’과 ‘허락’등의 의미를 지닌 예문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기로 한다.

20) 이 밖에도 중국어에는 사람을 지시하는 명사 대신 사람의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명사로써 사역자나 피사역자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표정, 시선, 웃음, 수염, 눈망울, 모습, 머리, 몸, 육신, 얼굴, 피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은 비록 무정물이지만, 환유작용에 의해서 유정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으나,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신체 부위로 표현할 때에는 발화자가 특별한 의도에 의해 이러한 무정성 명사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마음, 심경, 가슴, 정신, 기분, 영혼’ 등의 명사가 피사역자로 쓰인 예도 발견되는데, 이들은 구체적 심리 상태를 가리키기보다 사역의 영향을 받는 장소를 지시하는 환유적인 표현으로 피동자인 사람을 가리키게 되므로, 신체 부위와 함께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하였다.
(19) 實行正規化軍事訓練，讓我軍實現了從單一兵種向諸兵種合成軍隊的轉變。
정규화된 군사훈련의 실행은, 아군으로 하여금 단일 병에서 제병으로 합병되는 군대의 변화를 실현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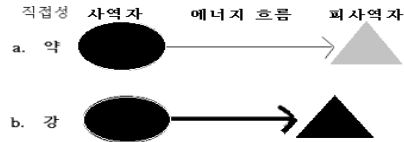
예문(17)의 ‘市政府’와 (18), (19)에서 술어성 사역자인 ‘政府出小分隊’와, ‘實行正規化軍事訓練’은 [-유정성]의 자질을 가진 행위자이지만, [+통제성]과 [+의도성](intention)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역자는 역동적인 행위를 유발하여 피사역자인 경험자에게 에너지를 가하여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출발점이 되며, NP₂인 ‘他們’과 ‘敵人的通信設備’와 ‘我軍’등에게 힘을 가하여 모종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예문 (18)의 VP‘破壞’는 사역자인 ‘出小分隊’가 수동자 ‘敵人的通信設備’에 에너지를 발산하여 상태를 변화시키는 역동성을 띤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문 (18), (19)에서의 사역자인 ‘市政府’나, ‘政府出小分隊’, ‘實行正規化軍事訓練’등은 일듯 보기에는 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모종의 기관이나 단체를 지칭하는 사물이 명령적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그 배후에는 역시 사람인 [+유정성]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순수한 [-유정성]으로 보기보다는 의미적으로 [+유정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명령적 행위 사역에서는 [+유정성]을 전제로 한 [+통제성]의 무유자질과 관계를 갖는 NP₁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필자는 통제성과 관련하여 주어의 행위가 목적어에 미치는 개념적 거리가 짧을 경우 통제성이 강화된다고 본다. 이러한 직접적 속성은 무생물 주어가 갖는 원형적 기능, 예를 들면 망치인 경우 물건을 박거나 때려 부수는 작용을 하는 사물로 인식된다. 인접성이란 동사의 행위가 경험자/수동자에 가해지는 것이 간접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과 충격에 의한 것으로 인식될 때, 인접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통제성도 강화된다고 본다. 이는 또한 개념적 거리가 실질적

언어 표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Langacker(1993: 107)의 에너지 흐름이론을 근간으로 변형하여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해 보았다.



[그림 1] 직접성과 행위성의 관계

그림 a는 NP1이 NP2에게 에너지를 전달함에 있어 직접적인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에너지의 전달의 개념적 거리가 짧기에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장악력이 크고, 따라서 통제력도 강화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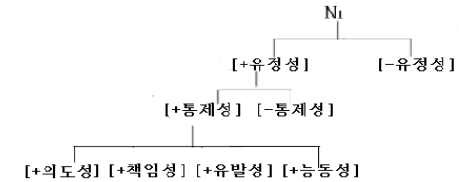
그림 b는 NP1이 NP2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직접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나 도구, 단체, 행위등과 같은 간접적인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에너지의 전달의 개념적 거리가 길기에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장악력이 작고, 따라서 통제력도 약화됨을 보여준다.

다음은 위 예문들을 포함한 복경 Corpus자료에서 추출한 '使'의미를 나타내는 200개의 사역 예문(21)을 추출하여 그 의미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는 NP1의 [+유정성]과 [-유정성]의 출현 비율을 다타낸 표이다.

21) 이러한 비율은 北京大漢語語言學研究中心의 漢語語料庫 <http://ccl.pku.edu.cn> 에서 致使의미를 나타내는 '使'자 사역문에 국한하여 200개의 예문을 추출하여 통계를 낸 것이다.
 위 통계는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무정성]자질의 명사 혹은 사건 등이 사역자로 쓰이는 예문들도 다수 발견되었으나, 위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종의 기관이나 단체를 지칭하는 사물이 명령적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그 배후에는 역시 사람의 의도나 의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두를 [+유정성]자질로 포함시킨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사역자	유정물(총수/분포율)	무정물(총수/분포율)
讓	200개 (100%)	0개 (0%)
吩	200개 (100%)	0개 (0%)
叫	200개 (100%)	0개 (0%)
평균	200개 (100%)	0개 (0%)

이상 논의해 온 NP1의 자질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 NP1의 특징]

3.2 NP2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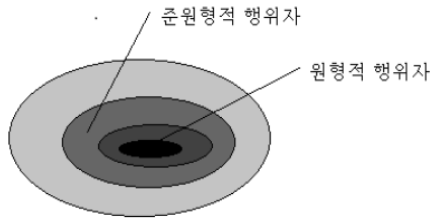
중국어에서는 의미상 V이 나타내는 행위나 동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분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피사역자가 된다. 본 절에서는 使의미 사역문 내에서 피사역자의 의미역할에 근거하여 '피사역자-피사역사건'을 구성함에 있어 그 자질을 분석해 보고 이로써 현대중국어 사역문에서 NP2의 역할 분담 양상을 파악하는 것대의 하나로 삼아보고자 한다.

Langacker(1991:258)는 사역문에서 경험자는 제 2의 행위자(secondary agent)로서 동의(consent), 지시를 수행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정신적 경험의 영역에 속하며, 사건을 시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참여자(active participant)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행위자란 능동적으로 동작을 수행하는 개체이다. 행위자로부터 유발된 행위는 경험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원인을

제공해주고, 경험자가 수령자 영역 내에서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피사역자는 또 하나의 행위자가 되어 행위자의 행위수행에 관한 사건을 진술하게 된다.

사역문의 여러 가지 유형들 가운데 ‘讓’, ‘畀’, ‘叫’ 구문은 피사역자가 행위자로 구성되는 사령문으로 피사역자는 동작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주로 [+유정성]의 특징을 지니게 되며, 사역자의 사역작용에 따라 동작을 행할 수 있는 경험의 주체여야 한다.²²⁾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경험자의 자격이 통사적인 기준을 두고 정의될 수도 있으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적 특징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어의 통사범주와 행위자의 의미범주간의 관련성을 통해 행위자가 일종의 복합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3 행위자의 원형성]

위 그림은 이러한 개념을 도표로 표현해낸 것으로서, 사역문 내에서의 제 1행

22) 김정대(1988: 37-44)에서 밝힌 행위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역자와 피사역자는 [+행위자]이어야 하고, 특히 사역자는 [+의도성]을 갖춰야 한다. 둘째, 인과성 조건으로 화자는 사역자의 사역행위로 말미암아 피사역자의 피사역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셋째, 수행성 조건으로 화자는 사역자의 사역행위가 있는 이후에 피사역자의 피사역행위가 반드시 수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사역자와 피사역자는 유정물이어야 하고 피사역자 스스로가 의도성을 갖고서 행동할 수 있는 행위자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어의 피사역자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자는 사건을 일으키는 근원지 영역 내에서 사역자에 속하고, 경험자는 수령자 영역 내에서 제 2 행위자인 피사역자에 속해 있다. 이러한 개념은 사역문 내에 존재하는 NP1과 NP2 모두가 행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주어는 행위자의 중앙부위에 위치할 것이고, 원형적인 행위자 성질을 지니지 않더라도 행위자에 근접하거나 그러한 특성에 부합하는 준행위자(혹은 제2행위자, 피사역자)의 경우 행위자의 주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도표에서 보여주는 행위자의 원형성은 행위자의 통제성과도 연결고리를 맺게 된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사령의미 사역문에서 사역자의 통제력은 일반 ‘兼語문이나 致使’의미 사역문의 경우보다 훨씬 강하며 피사역자의 경우 사역자의 요구에 의해 행위를 실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통제력은 더욱 약할 것이다. 일단 사역으로 파악되는 사건에서는 사동자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즉 결과사건이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위를 그럴 때 행위자가 이미 존재함에도 다른 행위자를 도입해야 하는 데에는 두 행위자 간의 미묘한 조종 문제(delicate manipulation)가 발생하는데²³⁾, 중국어에서는 사동자를 강력한 행위자로 보고 피사동자를 행위자이긴 하나 경험자/수동자(patientive)적 특성으로 보기 때문에 두 행위자 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러한 구문이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사역자의 사건발생 행위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N₂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N₂의 의미자질에 관하여 살펴보자.

다음은 문장에 등장하고 있는 [+유정성] 피사역자 N₂의 예를 들어놓은 문장이다.

- (20) 小張糾我打破了杯子。
小張은 나로 하여금 잔을 깨뜨리게 하였다.
- (21) 大家都覺得不能讓小五再唱下去了, 否則樂隊就無法在酒吧里生存。
모두들 小五로 하여금 다시 노래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밴드가 술집에서 생존할 방법이 없다.
- (22) 咱們家呢就是總得要他。他來, 不能讓別人來, 就是這個意思。

23) Shibatani(2002: 7)참조.

우리 집안은 언제나 그를 원했다. 그가 오면, 다른 사람을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바로 이 뜻이다.

경험자인 예문 (20)의 ‘我’와 (21)-(22)의 N_{P2}는 모두가 [+유정성]을 나타낸다. 이들은 사역자인 ‘這消息’, ‘窮困潦倒的現狀, 沒有希望的生活’, ‘體制自然轉軌’, ‘父母的早逝’, ‘這樣一個家庭’ 등과 같은 근원지의 영역에서 원인을 제공받아 수령자의 영역 내에서 모종의 반응이나 활동을 하는 능동적 참여자가 되어 물리적 혹은 정신적 경험을 하여 변화를 겪는 필수적인 의미역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정성]자질 즉 경험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생명을 가진 사역자가 유발한 행위를 수용하고 경험하는 참여자로 주로 사람의 자질을 필수적으로 가지게 된다. 또한 경험자는 수동성(passivity)의 의미자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뜻에 따라 행동하거나 그런 행동이 다른 것에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수동적인 참여자로서 사역자의 행위를 받아들여 물리적, 정신적인 변화를 체험 하는 개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유정성]을 지닌 무생물은 어떠한 육체적 활동이나, 정신적,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개체가 아니다. 역시 [-능동성]을 지닌 개체로서 어떠한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수동적으로 상태의 변화를 일으킬 뿐, 자발적인 자세로 경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자는 될 수 없다.

- (23) 他們要打倒那‘道’. 讓文學獨立起來,
그들은 그 ‘道’라는 것을 타도하여 문학을 독립시키려 한다.
(24) 我們有責任用自己的畫筆讓世界更多一點色彩, 當然也有權利讓自己,
우리는 스스로의 그림붓을 가지고 세상을 한층 더 알록달록하게 물들도록 할 책임감이 있다. 물론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 권리 또한 있다.

예문(23)-(24)의 피사역자 ‘文學’와 ‘世界’는 곧 [-유정성]의 자질을 지닌 수동자로, [+유정성]의 개체가 경험자²⁴⁾로서 생명력이 있으며, 물리적으로나 정신

24) 위 예문 (23)과 (24)의 피사역자인 ‘文學’와 ‘世界’는 吳竟存이 정의한 ‘使役’의 의미 즉 ‘하게 하다’, ‘- 하도록 만들다(使什麼做什麼)’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에 본고에서 논하는 ‘使役’의 사역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장을 참고하시오.

적으로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여 직접 경험하는 개체인 반면, 이러한 수동자는 생명력이 없는 무생물로서,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떠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개체가 아니고, 다만 행위자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간접적인 변화를 겪어야만 하는 개체라는 점에서 양자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 사역문에서는 [+유정성]의 개체와 유정성이 결여된 개체를 분류하여 후자를 수동자로 칭하고 있으나, ‘使役’의미를 나타내는 사역문에서의 N_{P2}는 거의 [+유정성]자질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정성]의 개체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사령의미 사역문은 사역자와 피사역자 모두 사람이 등장하여 기본동사가 피사역자의 의지가 관여하는 사건을 지시하는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구분은 사역자가 미치는 영향이 개인적이거나 혹은 사회적 힘(social force)의 발휘 등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권위가 있는 위치에서 물리적으로 피사역자로 하여금 행위를 수행하도록 이끌거나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두드러지는데, 이렇듯 위 2장에서 언급한 Talmy 동력화 이론에 근거하여 의미역자질을 분석해 볼 결과 사령의미 사역문은 유도적 사역에 매우 근접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다음은 역시 북경 Corpus 자료를 통해 ‘使役’의미 사역문 200개를 추출하여 확인되는 피사역자의 출현상황 가운데 [+유정물]과 [-유정물]의 출현 비율 상황을 통계해 놓은 표이며, 확인되는 바로서 사역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사역자가 [+유정성]을 띤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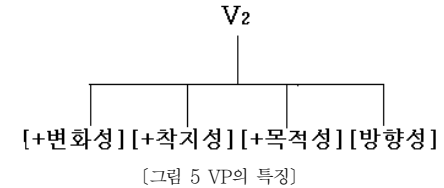
25) Kemmer는 Talmy의 분류에서 유도적 사역(inductive causation)에 속하는 이런 의미는 영어에서 ‘make’사역보다는 ‘have’나 ‘get(someone) to’사역문으로 주로 표현된다고 주장한다.

를...

- (27) 這是一個朋友的住宅，朋友出國了，就把房子交給他，讓他沒事過來照一下房子。
 이곳은 친구의 주택인데, 친구는 출국을 했기에, 이 집을 그에게 넘겨주어 그가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와서 좀 돌보아 주도록 하였다.
- (28) 還有一次，導演讓我扮演一名凍死在雪地上的戰士，一大早就開始，拍我在火車頂上站。
 또 한 번은 감독이 나로 하여금 눈 위에서 얼어 죽은 전사 역을 연기해 보라고 하였는데, 이른 아침부터 내가 기차 꼭대기에 서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 (29) 馮馬增志他們的房，後來那房賣了，讓我們搬到這院兒頭來，又在這院兒里，這是解放前搬進來的。
 馮馬增志무리의 방은 훗날 매각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정원으로 이사오도록 하였는데, 이 정원으로 이사 온 것은 또한 해방 전의 일이다.

예문 (26)의 '我'는 '他'라는 [+유정성]의 사역주에 의해 '去電腦公司上班'이라는 물리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받는다. 예문 (27)과 (28) 역시 피사역자로 하여금 '沒事過來照看一下房子'와 '扮演一名凍死在雪地上的戰士'라는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를 하는 것으로서 넓게 보았을 때 '使令'의미로 포함시키기로 한다. 예문(29)는 직접적인 사역자가 드러나지 않지만, 피사역자인 '我們'로 하여금 공간적 목적지인 '這院兒頭'로 이동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사역이동구문이다. 예문들을 통해 사역문은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모종의 원인을 제공하여 행위 및 공간적 상태변화를 일게 하는 구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 발생의 행위적·공간적 의미역에 해당하는 VP/VPC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역이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행위자인 사역자가 경험자나 수동자로 하여금 일련의 과정을 거쳐 모종의 도착 지점까지 이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착지성]과 [+목표성]이라는 자질을 갖는다. 이상 고찰해 온 VP의 자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그려낼 수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使令'의미를 기반으로 한 중국어 사역문의 논항구조 안에서 V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의미역의 특징에 관한 구명을 시도 해 보았다. '使令'이란 바로 사건 관련성의 정도로 설명이 되며, 이는 사건에 대해 행위를 가하는 특성이 신체적(physical) 혹은 정신적(mental)인지의 여부를 통해 구분되며, 하나의 의미역 특징이 다른 의미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다른 인과유형을 그려내기도 한다. 즉 사역자와 피사역자가 유생이나 무생이나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使令의미 사역문에서의 NP1인 사역자와 NP2인 피사역자는 핵심적이고 의무적인 논항들이라 볼 수 있다. 사건이나 행위의 유발을 제공하는 원인자인 사역자는 피사역자로 하여금 모종의 행위를 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그 주체로서 대부분 사람이 등장할 하게 되는데, 이가 사건 발생을 의도적으로 행하게 된다면 이는 [+유정성]과 [+통제성] [+의도성]을 갖는다. 단 사역자가 사람일지라도 사건 발생이 우연한 실수등과 같이 비의도적으로 일어날 경우 이는 [+유정성], [-통제성], [-의도성]을 갖게 된다. 피사역자 역시 사역자가 유발한 행위나 사건의 영향을 적극적인 입장으로 수렴할 태세를 갖춘 능동적 참여자가 있겠으나, 본 사역문에서는 주동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사건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행위자가 내린 명령을 수동적인 입장의 참여자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그려냈다. 따라서 피사역 참가자는 [-

통제성]과 [-의도성] [+수동성]의 경험자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사역문에서 사건 발생의 결과에 해당하는 VP/VPC에 관하여 살펴보면 물리적인 변화와 다른 심리적인 변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령의미 사역문의 사역자가 행위나 사건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에너지를 피사역자 에게 전하여 원인을 제공하면, 피사역는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행위적인 상태 변화를 하거나, 특정한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공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이들 두 종류의 VP공통점은 결국 모두가 다 경험자나 수동자로 하여금 목적지점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착지성]과 [+목적성], [+변화성], [+방향성]등을 갖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자면, 사역문은 원인자인 사역자가 모종의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면, 피사역자인 경험자나 수동자는 그 영향을 받아 내부적 혹은 외부적인 변화를 겪게 되거나, 특정한 목적지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 물리적인 움직임의 변화를 받는 내용으로 구성된 구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參考文獻》

1. 著書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1993.
 송창선, 《국어 사동법 연구》, 서울: 홍문각, 1998.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0.
 이익섭·채완,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학연사, 2000.
 정태구, 《논항구조와영어통사론》(재판), 서울: 한국문화사, 2002.
 鄧守信, 《漢語使成式的語義》,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1.
 丁聲樹等, 《現代漢語語法講話》, 北京: 商務印書館, 1999.
 範曉, 《論‘致使’結構》, 《語法研究和探索》, 北京: 商務印書館, 2000.
 洪波, 《使動形態的消亡與動結式的語法化》, 《語法化與語法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3.
 徐丹, 《“使”字句的演變——兼談“使”字的語法化》, 北京: 商務印書館, 2003.
 Givon, Talmy, 《Syntax: a Functional Typological Introduction》,

Amsterdam: Philadelphia: J. Benjamins Pub. Co. 1984.
 Goldberg, Adele E, 《Argument Structure Construc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1992.
 Jackendoff, R. S. · 고석주 역(1999), 《의미구조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9.
 Jackendoff, R. S. · 고석주 역(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1972.
 Ronald W. Langacker · 나익주 역, 《개념·영상·상징》: 문법의 인지적 토대》, 서울: 박이정, 2005.
 2. 論文
 김혜경, 《현대중국어 ‘V-得’결과구문의 사역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김윤정, <현대중국어 사동구문 비교분석 연구>, 《中國語文學》, 第42集, 2008.
 박미정, <현대중국어의 使動句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第18號, 2005.
 이혜영, <논항구조와 의미역 관계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第27卷, 第2號, 2001.
 장은숙·윤용진, <영어 사역화 동사의 의미자질>, 《영미어문학》, 第36集, 1997.
 홍기선, <한국어 사동구문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홍현태, 《영어주어의 행위자성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郭妹慧, <現代漢語致使句式研究>, 《中國語文學》 第23期, 2004.
 何元建, 王玲玲(2002), <論漢語使役句>, 《漢語學習》, 第4期.
 邢欣, <試析兼語式動詞“使”的特點>, 《新疆師範大學學報》, 第4期, 1992.
 黃正德 著, 鄭池秀 譯, <논항이론과 중국어 동사 논항구조연구(1)>, 《中國語文論叢刊》, 第25集, 2002.
 苗延昌, <現代中國語 動詞的 使動用法>, 《中國語文學》 第23期, 1994.
 ———, <使자 사동문의 의미론적 분석>, 《中國語文學》 第21期, 1997.
 ———, <讓’결과문의 VP/VPC의 의미적 특징>, 《中國文學》 第58集, 2008.

- 王臨惠, <試論現代漢語的‘致動’動詞>, 《語言研究》, 第4期, 1991.
- 張美蘭, <近代漢語使役動詞及其相關的句法、語義結構>, 《清華大學學》, 第2卷, 第21期, 2006.
- 張 靜, <‘使’和使動句>, 《語文學習》, 第2期, 1982.
- 朱 琳, <漢語使役動詞的虛化>, 《Journal of yunnan Finance & Economics University》, 第23卷 第5期, 2008.
3. 辭典
- 《국어학사전》, 한글학회출판사, 1995.
- 《現代漢語詞典》(增補本), 商務印書館, 2002.
- 예문출처: <http://ccl.pku.edu.cn>

《中文提要》

使役句是现代汉语的一种重要句式, 但以往对其内部结构的分析缺少关注。全面分析表示使役意义的语义成分及其相互关系, 现代汉语使役句是一种表示‘使令’, ‘允许’, ‘放任’, ‘致使’意义等的谦语句。本文这四种意义的使役句中特地着眼于表示‘使令’意义的使役句。从配价成分分析, 使动词是一个二价动词, 揭示使字句在语义方面的成句条件。 本论文以中国语使役句内存在的动词(V)所构成的论元结构的意义为根据, 探求一下论元结构的相互依赖关系为目的。中国语使役句要强制性的以使役主体和被使役主体为构成。使役主体发生事件而提供原因, 被使役主体接受这影响而在物理上(无论在空间上还是在行为上), 精神上发生某种变化, 使役主体是与行为有关的施事者担任其角色而影响到受事者。受事者以投领的立场积极参与而受到使役主体所发生的物理能量, 或者是受到心理变化的经验者(experiencer), 或者是不可避免地或被动的(passive)立场上接受的受事者担任其角色。

關鍵詞 : 现代汉语 使令句 NP1 NP2 V VP

이 논문은 2012년 5월 15일에 접수되어 2012년 6월 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2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